

## “오늘은 성인도 예방접종 하는 날!” 사노피 파스퇴르(주), 예방접종주간 맞아 성인 예방접종 중요성 알려

- \* 4 월 마지막 주 '세계예방접종주간' 맞아 성인 예방접종 중요성 강조
- \* 성인에 접종 권장되는 Tdap 백신과 파상풍·백일해 등 질환 정보 제공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4 월 26 일 -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대표 파스칼 로빈,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는 청소년·성인용 Tdap 백신 아다셀주가 세계예방접종 주간(4.24-4.30)을 맞아 성인 예방접종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매년 4 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World Immunization Week)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예방접종주간의 테마를 “백신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한다(Vaccines bring us closer)”로 공표하고, 코로나 19 뿐 아니라 기존 예방접종에 대해 더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은 20 여 가지 이상의 감염병을 예방하며, 매년 200~300 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생후 3 세 아동 기준) 예방접종률은 97.2%로 매우 높은 반면, 성인의 예방접종률은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성인에서 접종 권장되는 혼합백신인 Tdap 백신은,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세가지 감염병을 한 번에 예방한다. 파상풍과 백일해 등은 유년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 지속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에서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파상풍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질환으로, 개물림 교상 등 오염된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파상풍 항체는 30 대를 기점으로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어, 30 대 이후 연령의 성인에서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신생아 감염시, 집중 치료에도 치사율이 4%에 이르는 중한 감염 질환으로, 가족 내 2 차 발병률이 80%에 달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신생아 및 영아에서 일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Tdap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을 기존 가임기 여성 및 신생아가 있는 가족 내 성인에서 임신부 및 생후 12 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 도우미, 의료인,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등)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성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Tdap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예방접종주간 동안 정보성 카드 콘텐츠를 사내 SNS 에도 게시한다.

(\* Tdap 백신 아다셀주: 만 11~64 세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1 회 접종으로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예방)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대표**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감염병 예방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사노피파스퇴르는 110년 이상의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이자 60년 이상의 혼합백신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감염병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 백신 개발, 예방범위 확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공공보건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감염질환 예방 활동과 접종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 파스퇴르의 아다셀주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으로, 200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이후, 전 세계 7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만 11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성인에서 1회 접종으로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

**World Immunization Week**  
**세계예방접종주간**

성인 감염병 예방 위한  
**T-Day NEWS**

SANOFI PASTEUR

**#2 세계 예방접종 주간**  
혼합백신 중 Tdap 백신은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합백신은 다른 종류의 항원을 혼합한 백신으로  
접종 횟수와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접종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접종 권고되는 혼합백신 중 하나는 Tdap 백신으로,<sup>7</sup>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세가지 감염병을 한 번에 예방합니다.\*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3 세계 예방접종 주간**  
유년기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도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sup>8,10</sup>

특히 Tdap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상풍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항체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령	항체 평균
10대 이하	2.0
20대	1.0
30대	1.0
30대	0.5
40대	0.2
50대	0.1
60대	0.1

따라서, 유년기에 예방접종(혼합백신)을 완료했다라도,<sup>10</sup>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sup>9</sup>  
예방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sup>10</sup>

**#6 세계 예방접종 주간**  
사노피 파스퇴르 아다셀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한 번에 예방하는 국내 최초의 Tdap 백신입니다.<sup>11</sup>

110년 이상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이자<sup>12</sup>  
60년 이상의 혼합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사노피 파스퇴르는<sup>13</sup>  
20여 년간 세계 72개국 이상에 널리 접종된<sup>14</sup>  
청소년·성인 Tdap 백신 아다셀주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sup>15</sup>

Tdap 백신 아다셀주<sup>17</sup>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감염 예방<sup>18</sup>  
전 세계 72개국에서 사용<sup>19</sup>  
만 11-64세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1회 접종<sup>20</sup>

세계예방접종주간 성인 감염병 예방 위한 T-Day NEWS 중 일부 / 사노피 파스퇴르 제공

### *사노피 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문으로 12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지닌 글로벌 백신 기업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1989 년 국내 최초로 독감 원액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2 년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외에 독감 백신(완제), A 형 간염 백신, 국내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국내 최초의 DTaP-IPV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DTaP-IPV/Hib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DTaP-IPV-HepB-Hib 혼합백신, 4 가 단백질합 수막구균 백신, 국내 최초의 베로세포 일본뇌염 생백신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